

The
Software
Alliance

BSA

경쟁력 우위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INSEAD

The Business School
for the World®



목차

| | |
|--------------------------------|----|
| 보고서 | 1 |
|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치 | 2 |
| 거시경제학적 분석..... | 2 |
| GDP 이득 | 3 |
| GDP 투자수익률(ROI) | 4 |
| 결론..... | 8 |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위한 BSA 청사진..... | 9 |
| 분석 방법 | 10 |
| 부록..... | 12 |
| BSA(소프트웨어연합) 소개 | 15 |
| 인시아드(INSEAD) eLab 소개..... | 16 |

보고서

소프트웨어는 오늘날 경제 전 부문의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다. 모든 분야의 기업이 제품 설계, 서비스 제공, 고객과의 의사소통,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제대로 라이선스를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보다 국가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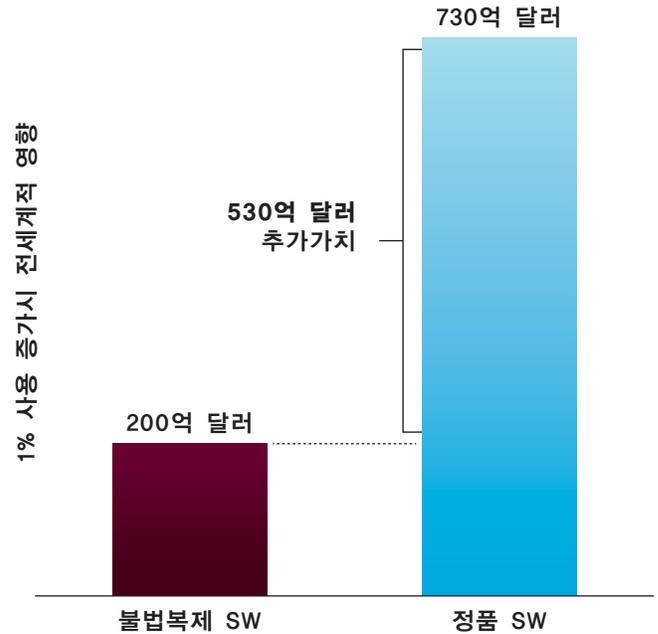
실제로 BSA(소프트웨어연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품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국가 경제활동에 세 배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1달러당 국내생산(national production)이 평균 437달러 증가하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BSA의 의뢰로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이자 연구기관인 인시아드(INSEAD)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세계 95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활동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GDP(국내총생산)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적으로 정품 PC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하면 세계 경제가 730억 달러만큼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불법복제 PC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했을 때 세계 경제에 발생하는 가치는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즉,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해 530억 달러의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도표 1 참조)
- 투자 대비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저소득 국가들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1달러를 투자하여 437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는 1달러당 35달러의 이득 밖에 얻지 못한다.

도표 1. 정품 소프트웨어 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영향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지만,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도 그 수준이 상당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1달러당 각각 140달러와 117달러씩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기업이 실적과 신뢰성 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자료에서 다룬 바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보안 위험에 대한 노출과 오작동을 줄이고 해적판이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우수한 운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비단 기업의 사업활동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강력한 법률과 법 집행 제도를 확립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소프트웨어 자산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치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운용 효율성도 가져온다. 또한 회사 내부는 물론, 기업과 고객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전세계 기업들이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보다 민첩하게 포착,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사업 운영의 기본 요소이며, 정부, 기업, 조직의 귀중한 무형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정품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과 기타 보안 취약점을 감소시켜 기업 내 효율과 효율을 제고한다. 즉, 정품 소프트웨어에는 업그레이드 및 패치와 교육, 문제해결 같은 제조업체 지원 등 부가가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므로 시스템 오작동, 고장 시간, IT 수리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은 이러한 효율성을 계속 활용하여 운영과 재정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 도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비용 감소와 투자 확대는 생산 증대와 국가경제 성장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거시경제학적 분석

본 연구는 기업이 소프트웨어로부터 생산성 이득과 운용 효율성을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NSEAD 소속 연구진은 노동, 물적 자본 및 PC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경제적 투입요소의 변화와 국내 생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생산함수모델 (production function model) (도표 3)을 활용했다. 생산 함수는 각 변수에 연관된 GDP의 '탄력성', 즉 각 투입요소의 변화가 GDP의 변화에 어떤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결정한다.

INSEAD는 이번 연구에서 세계 경제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총 95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장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변화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는 0.13%의 탄력성을 가지는데, 이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GDP가 평균 0.13%증가함을 의미한다. 중간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는 표 1(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듯이 GDP 증가율이 각각 0.06%와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²

고소득 국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로 얻을 수 있는 절대적 이득이 더 큰 이유는 이들 국가가 경제 생산 시에

도표 2. 소프트웨어 가치 사슬



¹ 해리슨 그룹(Harrison Group, 2011), 정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대 불법복제 제품(Genuine Microsoft Products vs. Pirated Counterfeits), www.microsoft.com.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은 불법복제나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비해 문서와 웹사이트의 부팅, 출력, 로딩을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등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² 본 조사의 국가 분류는 세계은행의 소득 그룹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저소득 국가들과 하위 중간소득(lower-middle-income)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고, 상위 중간소득(upper-middle-income) 국가들은 중간소득 국가 그룹에 포함했으며, 고소득 국가들은 그대로 고소득 국가로 분류했다.

도표 3.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국내생산의 투입요소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 대상국에서 최소 0%에서부터 최대 0.03%의 탄력성을 보였는데, 결과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³

GDP 이득

이번 연구는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탄력성을 추론함으로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GDP 이득이 국가마다 상이함을 보여준다. 가령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미국 경제에는 200억 달러, 일본 경제에는 76억 달러, 인도 경제에는 12억 달러의 이득이 각각 발생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2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전세계 경제생산이 730억 달러 증가한다.⁴ 여기서 발생한 530억 달러의 차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신 정품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여 추가 창출되는 경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가치 증대는 이번 연구에서 다룬 모든 시장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확대에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20개국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시 GDP에 미치는 영향

| 정품 소프트웨어 | 탄력성 |
|----------|------------|
| 고소득 국가 | 0.13% |
| 중간소득 국가 | 0.06% |
| 저소득 국가 | 0.07% |
| 불법 소프트웨어 | 탄력성 |
| 전체 국가 | 0 에서 0.03% |

³ 본 모델에 포함된 기타 투입요소들은 모두 95%이내의 신뢰 수준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는 탄력성의 최고 한도인 0.03%를, 정품 소프트웨어에는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탄력성을 적용

표 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 경제 가치

| | 국가 | 추가 경제 가치 |
|-----|------|----------|
| 1. | 미국 | \$15.1B |
| 2. | 일본 | \$5.9B |
| 3. | 독일 | \$3.6B |
| 4. | 프랑스 | \$2.8B |
| 5. | 영국 | \$2.4B |
| 6. | 중국 | \$2.2B |
| 7. | 이탈리아 | \$2.2B |
| 8. | 캐나다 | \$1.7B |
| 9. | 스페인 | \$1.5B |
| 10. | 호주 | \$1.4B |

| | 국가 | 추가 경제 가치 |
|-----|---------|----------|
| 11. | 대한민국 | \$1.1B |
| 12. | 네덜란드 | \$836M |
| 13. | 브라질 | \$743M |
| 14. | 인도 | \$739M |
| 15. | 스위스 | \$636M |
| 16. | 사우디아라비아 | \$577M |
| 17. | 러시아 | \$557M |
| 18. | 스웨덴 | \$538M |
| 19. | 폴란드 | \$515M |
| 20. | 벨기에 | \$512M |

GDP 투자수익률(ROI)

소프트웨어가 국가 경제에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로부터 발생하는 GDP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⁵, 즉 소프트웨어에 1달러 추가 투자 시 발생하는 GDP증가 수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정품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보다 일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반적인 GDP 이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소득 시장에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투자액 대비 수익 기준으로는 신흥 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소프트웨어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중간소득 국가에서 140달러, 고소득 국가에서 117달러의 추가 GDP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평균 437달러의 추가 GDP를 얻을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GDP 수익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GDP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으므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투자 금액이 더 큰 한계 영향(marginal impact)을 갖기 때문이다. 즉,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창출될 수 있는 가장 큰 즉각적인 경제 이득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가장 낮은 신흥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표 3에 나와 있듯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이점은 정품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ROI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시 발생하는 ROI와 비교해 봤을 때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소득 국가에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에 1달러를 투자하면 같은 금액을 불법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보다 GDP관련 ROI가 거의 3배 가량 증가한다.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ROI가 5배 더 높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의 ROI보다 무려 12배나 높다.

표 4에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95개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시 얻을 수 있는 GDP 이득과 ROI의 추정치를 국가별로 나타내었다.⁶

표 3.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률(ROI)

| | ROI: 정품 소프트웨어 | ROI: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 ROI: 경제 가치의 차이 |
|---------|---------------------|-----------------------|----------------------|
| 고소득 국가 | \$117 | \$42 | \$75 |
| 중간소득 국가 | \$140 | \$28 | \$112 |
| 저소득 국가 | \$437 | \$35 | \$402 |

⁵ GDP (\$) / 1%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의 \$ 가치 = 소프트웨어 1달러(\$) 당 투자수익률(ROI)

⁶ 국가별 이득 추정치는 각 국가의 소득 그룹에 대한 평균 탄력성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실제 이득은 해당 국가의 탄력성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수준까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 정품 소프트웨어 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치

GDP 이득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미국 | 19,622 | 4,528 | 15,094 |
| 일본 | 7,627 | 1,760 | 5,867 |
| 독일 | 4,642 | 1,071 | 3,571 |
| 프랑스 | 3,605 | 832 | 2,773 |
| 영국 | 3,161 | 729 | 2,432 |
| 중국 | 4,391 | 2,196 | 2,196 |
| 이탈리아 | 2,853 | 658 | 2,195 |
| 캐나다 | 2,257 | 521 | 1,736 |
| 스페인 | 1,938 | 447 | 1,491 |
| 호주 | 1,783 | 412 | 1,372 |
| 대한민국 | 1,451 | 335 | 1,116 |
| 네덜란드 | 1,087 | 251 | 836 |
| 브라질 | 1,486 | 743 | 743 |
| 인도 | 1,294 | 554 | 739 |
| 스위스 | 826 | 191 | 636 |
| 사우디아라비아 | 750 | 173 | 577 |
| 러시아 | 1,115 | 557 | 557 |
| 스웨덴 | 700 | 161 | 538 |
| 폴란드 | 669 | 154 | 514 |
| 벨기에 | 665 | 153 | 512 |
| 노르웨이 | 632 | 146 | 486 |
| 오스트리아 | 544 | 126 | 419 |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468 | 108 | 360 |
| 멕시코 | 693 | 347 | 347 |
| 인도네시아 | 593 | 254 | 339 |
| 덴마크 | 432 | 100 | 333 |
| 그리스 | 388 | 90 | 299 |
| 핀란드 | 346 | 80 | 266 |
| 홍콩 | 317 | 73 | 244 |
| 이스라엘 | 316 | 73 | 243 |
| 싱가포르 | 312 | 72 | 240 |
| 포르투갈 | 309 | 71 | 238 |
| 터키 | 464 | 232 | 232 |
| 아일랜드 | 283 | 65 | 217 |
| 체코공화국 | 280 | 65 | 215 |
| 쿠웨이트 | 230 | 53 | 177 |
| 카타르 | 225 | 52 | 173 |

GDP 투자수익률(ROI)
 (정품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1달러 투자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짐바브웨 | 1,992 | 74 | 1,918 |
| 잠비아 | 2,042 | 192 | 1,849 |
| 예멘 | 1,275 | 68 | 1,207 |
| 카메룬 | 967 | 85 | 882 |
| 알제리아 | 716 | 68 | 648 |
| 방글라데시 | 474 | 23 | 451 |
| 코트디부아르 | 449 | 45 | 404 |
| 쿠웨이트 | 459 | 74 | 385 |
| 아제르바이잔 | 380 | 28 | 352 |
| 오만 | 405 | 60 | 346 |
| 세네갈 | 394 | 48 | 346 |
| 알바니아 | 389 | 65 | 324 |
| 파키스탄 | 327 | 23 | 304 |
| 카타르 | 363 | 84 | 279 |
| 나이지리아 | 300 | 28 | 272 |
| 이라크 | 288 | 20 | 268 |
| 카자흐스탄 | 288 | 45 | 242 |
| 스리랑카 | 253 | 21 | 232 |
| 인도네시아 | 248 | 17 | 231 |
| 베네수엘라 | 208 | 14 | 194 |
| 아르메니아 | 202 | 12 | 191 |
| 조지아 | 196 | 8 | 187 |
| 그리스 | 177 | 26 | 151 |
| 중국 | 165 | 25 | 140 |
| 사우디아라비아 | 174 | 39 | 135 |
| 튀니지 | 154 | 27 | 127 |
| 바레인 | 152 | 30 | 122 |
| 키프로스 | 156 | 39 | 117 |
| 모로코 | 150 | 33 | 117 |
| 이집트 | 146 | 40 | 106 |
| 보스니아 | 140 | 36 | 104 |
| 이탈리아 | 135 | 34 | 102 |
| 크로아티아 | 126 | 26 | 101 |
| 터키 | 144 | 44 | 100 |
| 볼리비아 | 109 | 12 | 97 |
| 폴란드 | 122 | 25 | 97 |
| 도미니카공화국 | 114 | 18 | 96 |

GDP 이득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뉴질랜드 | 185 | 43 | 142 |
| 헝가리 | 182 | 42 | 140 |
| 아르헨티나 | 268 | 134 | 134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45 | 123 | 123 |
| 태국 | 207 | 104 | 104 |
| 콜롬비아 | 199 | 100 | 100 |
| 슬로바키아 | 125 | 29 | 96 |
| 베네수엘라 | 190 | 95 | 95 |
| 나이지리아 | 165 | 71 | 94 |
| 이집트 | 161 | 69 | 92 |
| 필리핀 | 157 | 67 | 90 |
| 말레이시아 | 167 | 84 | 84 |
| 파키스탄 | 148 | 63 | 84 |
| 칠레 | 149 | 75 | 75 |
| 오만 | 93 | 22 | 72 |
| 우크라이나 | 116 | 50 | 66 |
| 크로아티아 | 83 | 19 | 64 |
| 룩셈부르크 | 77 | 18 | 60 |
| 알제리 | 113 | 57 | 57 |
| 카자흐스탄 | 112 | 56 | 56 |
| 루마니아 | 108 | 54 | 54 |
| 페루 | 106 | 53 | 53 |
| 슬로베니아 | 64 | 15 | 50 |
| 베트남 | 87 | 37 | 50 |
| 이라크 | 81 | 35 | 46 |
| 방글라데시 | 77 | 33 | 44 |
| 모로코 | 70 | 30 | 40 |
| 키프로스 | 32 | 7 | 25 |
| 스리랑카 | 41 | 18 | 24 |
| 바레인 | 30 | 7 | 23 |
| 에스토니아 | 29 | 7 | 22 |
| 에콰도르 | 40 | 20 | 20 |
| 아제르바이잔 | 38 | 19 | 19 |
| 과테말라 | 33 | 14 | 19 |
| 도미니카공화국 | 33 | 17 | 17 |
| 불가리아 | 32 | 16 | 16 |
| 아이슬란드 | 18 | 4 | 14 |
| 튀니지 | 28 | 14 | 14 |
| 우루과이 | 28 | 14 | 14 |

GDP 투자수익률(ROI)
 (정품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1달러 투자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과테말라 | 106 | 12 | 94 |
| 몰도바 | 98 | 5 | 93 |
| 필리핀 | 109 | 20 | 89 |
| 스페인 | 125 | 37 | 88 |
| 케냐 | 98 | 12 | 86 |
| 몰타 | 125 | 38 | 86 |
| 우크라이나 | 94 | 8 | 86 |
| 베트남 | 94 | 9 | 84 |
| 에스토니아 | 106 | 27 | 80 |
| 슬로바키아 | 122 | 42 | 80 |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132 | 52 | 80 |
| 페루 | 103 | 25 | 78 |
| 슬로베니아 | 108 | 29 | 78 |
| 대한민국 | 119 | 41 | 78 |
| 아이슬란드 | 99 | 25 | 74 |
| 에콰도르 | 93 | 22 | 71 |
| 홍콩 | 103 | 32 | 71 |
| 아르헨티나 | 91 | 20 | 70 |
| 루마니아 | 89 | 26 | 63 |
| 헝가리 | 88 | 29 | 59 |
| 인도 | 75 | 19 | 56 |
| 아일랜드 | 101 | 45 | 56 |
| 포르투갈 | 84 | 29 | 55 |
| 우루과이 | 70 | 16 | 54 |
| 태국 | 63 | 12 | 50 |
| 요르단 | 77 | 28 | 49 |
| 프랑스 | 77 | 30 | 47 |
| 멕시코 | 74 | 28 | 46 |
| 칠레 | 61 | 20 | 42 |
| 콜롬비아 | 76 | 34 | 42 |
| 러시아 | 59 | 17 | 42 |
| 불가리아 | 56 | 16 | 40 |
| 체코공화국 | 70 | 30 | 40 |
| 리투아니아 | 68 | 29 | 39 |
| 이스라엘 | 74 | 38 | 36 |
| 라트비아 | 62 | 26 | 36 |
| 코스타리카 | 55 | 20 | 35 |
| 브라질 | 59 | 26 | 33 |
| 싱가포르 | 60 | 28 | 32 |

GDP 이득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예멘 | 24 | 10 | 14 |
| 케냐 | 24 | 10 | 13 |
| 리투아니아 | 26 | 13 | 13 |
| 코스타리카 | 25 | 12 | 12 |
| 볼리비아 | 17 | 7 | 10 |
| 카메룬 | 18 | 8 | 10 |
| 코트디부아르 | 17 | 7 | 10 |
| 요르단 | 17 | 9 | 9 |
| 몰타 | 12 | 3 | 9 |
| 라트비아 | 17 | 9 | 9 |
| 잠비아 | 13 | 6 | 8 |
| 조지아 | 10 | 4 | 6 |
| 세네갈 | 10 | 4 | 6 |
| 보스니아 | 11 | 5 | 5 |
| 알바니아 | 8 | 4 | 4 |
| 아르메니아 | 7 | 3 | 4 |
| 짐바브웨 | 7 | 3 | 4 |
| 마케도니아 | 6 | 3 | 3 |
| 몰도바 | 5 | 2 | 3 |
| 총액 | \$730억 | \$200억 | \$530억 |

GDP 투자수익률(ROI)
 (정품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1달러 투자시)

| 국가 | 정품 소프트웨어 (\$US M)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US M) | 가치 차이 (\$US M) |
|----------|-------------------|---------------------|----------------|
| 노르웨이 | 81 | 50 | 30 |
| 캐나다 | 73 | 46 | 28 |
| 독일 | 72 | 47 | 25 |
| 네덜란드 | 62 | 39 | 23 |
| 벨기에 | 83 | 61 | 22 |
| 마케도니아 | 54 | 14 | 22 |
| 영국 | 57 | 38 | 20 |
| 말레이시아 | 31 | 13 | 18 |
| 덴마크 | 62 | 45 | 17 |
| 핀란드 | 55 | 38 | 17 |
| 호주 | 70 | 54 | 16 |
| 오스트리아 | 72 | 56 | 16 |
| 스위스 | 54 | 37 | 16 |
| 일본 | 108 | 94 | 14 |
| 스웨덴 | 48 | 35 | 13 |
| 뉴질랜드 | 53 | 43 | 10 |
| 룩셈부르크 | 59 | 54 | 5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3 | 22 | 2 |
| 미국 | 47 | 46 | 1 |

결론

정품 소프트웨어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기업과 국내생산 모두에 있어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한 이득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부가가치서비스를 더 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수반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는 법적인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이나 보안 위험에도 노출된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번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비해 국가 경제에 창출하는 가치가 적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혁신과 기업의 성공을 촉진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경제성장 해법 모색에 고심하는 각국 정부에게 시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위한 BSA 청사진

대국민 교육과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관리와 라이선스 준수를 통한 창작활동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불법복제 폐해와 지적재산권 가치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구입, 활용,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를 장려하기 위해 업계 주도 캠페인을 지원함으로써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불법복제를 감소시켜 정부,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BSA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 전문가, 조직체 및 감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기반 SAM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법 현대화로 새로운 혁신에 대처

전세계적으로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기술 혁신의 속도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못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래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소프트웨어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 방지 등 활발한 법 집행 조치를 실시하고 기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전담 자원 투입으로 법집행 강화

소프트웨어 도용(software theft)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법자에 대한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

- 전국 및 지역별로 지적재산권 집행 전담기관을 구성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위한 전용 자원을 제공
- 경찰과 기타 집행기관의 국가간 협력을 확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법 집행 관련 조율을 개선
- 법 집행 기관 및 사법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지원(적절한 곳에 지재권 전담 법원 개소)하고 기술적 원조를 강화하여 불법복제 관련 법 집행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계속 변화하는 지재권 침해 행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민사 및 형사부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의무사항을 이행함. 또한 지적재산권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같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혁신의 부적절한 사용과 침해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

솔선수범

각국 정부는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운영에 있어서 완전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공기업과 협력업체 및 조달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SA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분석 방법

경쟁력 우위 –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는 BSA(소프트웨어연합)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전세계 GDP의 96%를 차지하는 95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정교하게 통계 분석했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이자 연구기관인 INSEAD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경제 투입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변화의 결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생산함수 모델(production function model)이라는 이미 정립된 거시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했다. 생산함수는 경제 투입요소와 연관된 GDP의 탄력성, 즉 특정 변수의 변화 발생시 나타나는 GDP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아래 도표에 나와 있듯이, 투입요소 변수에는 노동, 물적 자본, 정보통신기술(ICT) 자본, PC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광의적인 ICT 자본 변수에서

PC 소프트웨어를 따로 분리한 후 정품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세분하여, 이들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는 각각의 GDP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모델에서 정품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대신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산출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투입요소간의 관계는 국내생산방정식(national production equation)에 따라 표현했다.

$$Q_{it} = A_{it} F(L_{it}, K_{it}, K_{it}^{IT}, X_{it}^I, X_{it}^U)$$

국내생산의 투입요소



탄력성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 변수 | 설명 | 출처 |
|---------------------------------|---|---|
| Q_{it} 국내생산 | 국가별(i) (t)년도 GDP의 총액수준 (미 달러)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 L_{it} 노동 | 국가별(i) (t)년도 전체 고용인구 추정치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 K_{it} 물적자원 | 국가별(i) (t)년도 건물, 도로, 교각, 공항, 수송장비, 기계 등 물적 자본 보유량 |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전체 경제 데이터베이스(Total Economy Database) |
| K_{it}^{IT} ICT 자본 (소프트웨어 제외) | 국가별(i) (t)년도 PC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를 제외한 컴퓨터 및 통신장비의 보유량 |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전체 경제 데이터베이스(Total Economy Database) |
| X_{it}^I 정품 소프트웨어 | 국가별(i) (t)년도 정품 PC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 BSA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 |
| X_{it}^U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 국가별(i) (t)년도 불법복제 PC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 BSA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 |
| A_{it} 중요소생산성 | 국가별(i) (t)년도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투입요소를 요인으로 볼 수 없는 GDP 상의 증가치, 본 증가분은 기술 및 여타의 변화하는 변수에 따른 경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 |

이번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에 해당하는 각국의 원본 데이터를 사용했다.

생산함수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코브-더글라스 함수의 로그 형식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선형실험식(additive linear empirical equation)으로 변환한다.

$$\text{Log } Q_{it} = a + b_1 \text{Log}(L_{it}) + b_2 \text{Log}(K_{it}) + b_3 \text{Log}(K_{it}^{\text{IT}}) + b_4 \text{Log}(X_{it}^{\text{I}}) + b_5 \text{Log}(X_{it}^{\text{U}}) + e_{it}$$

여기에서 b_1, b_2, b_3, b_4, b_5 는 추정해야 할 변수이며 각 투입요소별 산출 결과인 Q 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e_{it} 는 오차항으로서,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기 식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국가별 특성(상이한 업무 윤리 등)에 해당하는 추정수치와 Q 에 대한 관측치의 편차를 나타낸다. a 는 상수항이다.

상기 식은 국가에 고정된 영향을 회귀 분석하여 추정된다. 이 모델을 통해 봤을 때 국내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투입요소인 고용(0.53%)과 물적 자본(0.24%)의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IT자본의 탄력성은 0.06%였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GDP증가치는 세계 평균 0.6%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소득별 그룹 분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GDP증가치는 최대 0.03%였다. 하지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분석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에는 변산도가 너무 커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탄력성이 0%에서 0.03%사이인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기타 모든 투입요소는 95%의 신뢰 수준내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동일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탄력성 추정치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INSEAD는 절대항(투입요소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별 항(투입요소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탄력성 추정치를 계산했다. 두 추정치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로써 본 보고서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탄력성의 GDP 이득으로의 변환

이 모델에서 결정된 탄력성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을 통해 정품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GDP 증가치의 달러 가치를 계산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 증가 시 GDP 이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달러 증가 시 ROI



본 보고서에서는 작성 당시 활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인 2011년도 GDP와 소프트웨어 시장 데이터에 탄력성값을 적용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추가 경제 가치 계산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창출되는 GDP의 차이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추가 경제 가치(GDP 이득)



추가 경제 가치(ROI)



부록

국가별 근거 자료

| | 2011년 GDP (\$US M) |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율 |
|---------------|-----------------------|--|--|-------------|
| 고소득 국가 | | | | |
| 호주 | 1,371,764 | 2,554 | 763 | 23% |
| 오스트리아 | 418,484 | 757 | 226 | 23% |
| 바레인* | 22,946 | 20 | 23 | 54% |
| 벨기에 | 511,533 | 798 | 252 | 24% |
| 캐나다 | 1,736,051 | 3,085 | 1,141 | 27% |
| 크로아티아 | 63,850 | 66 | 74 | 53% |
| 키프로스 | 24,690 | 21 | 19 | 48% |
| 체코공화국 | 215,215 | 397 | 214 | 35% |
| 덴마크 | 332,677 | 703 | 222 | 24% |
| 에스토니아 | 22,185 | 27 | 25 | 48% |
| 핀란드 | 266,071 | 630 | 210 | 25% |
| 프랑스 | 2,773,032 | 4,689 | 2,754 | 37% |
| 독일 | 3,570,556 | 6,447 | 2,265 | 26% |
| 그리스 | 298,734 | 219 | 343 | 61% |
| 홍콩 | 243,666 | 308 | 232 | 43% |
| 헝가리 | 140,029 | 206 | 143 | 41% |
| 아이슬란드 | 14,059 | 18 | 17 | 48% |
| 아일랜드 | 217,275 | 280 | 144 | 34% |
| 이스라엘 | 242,929 | 427 | 192 | 31% |
| 이탈리아 | 2,194,750 | 2,107 | 1,945 | 48% |
| 일본 | 5,867,155 | 7,054 | 1,875 | 21% |
| 대한민국 | 1,116,247 | 1,223 | 815 | 40% |
| 쿠웨이트 | 176,590 | 50 | 72 | 59% |
| 룩셈부르크 | 59,475 | 132 | 33 | 20% |
| 몰타 | 8,887 | 9 | 7 | 43% |
| 네덜란드 | 836,257 | 1,741 | 644 | 27% |
| 뉴질랜드* | 142,477 | 351 | 99 | 22% |
| 노르웨이 | 485,803 | 781 | 289 | 27% |
| 오만 | 71,782 | 23 | 36 | 61% |
| 폴란드 | 514,496 | 548 | 618 | 53% |
| 포르투갈 | 237,522 | 368 | 245 | 40% |
| 카타르 | 172,982 | 62 | 62 | 50% |
| 사우디아라비아 | 576,824 | 431 | 449 | 51% |
| 싱가포르 | 239,700 | 518 | 255 | 33% |
| 슬로바키아 | 95,994 | 102 | 68 | 40% |
| 슬로베니아 | 49,539 | 60 | 51 | 46% |

| | 2011년 GDP (\$US M) |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율 |
|---------------|-----------------------|--|--|-------------|
| 고소득 국가 | | | | |
| 스페인 | 1,490,810 | 1,548 | 1,216 | 44% |
| 스웨덴 | 538,131 | 1,460 | 461 | 24% |
| 스위스 | 635,650 | 1,542 | 514 | 25% |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360,245 | 354 | 208 | 37% |
| 영국 | 2,431,589 | 5,530 | 1,943 | 26% |
| 미국 | 15,094,000 | 41,664 | 9,773 | 19% |

* 바레인과 뉴질랜드는 2010년도 GDP 사용

| | 2011년 GDP (\$US M) |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율 |
|----------------|-----------------------|--|--|-------------|
| 중간소득 국가 | | | | |
| 알바니아 | 12,960 | 2 | 6 | 75% |
| 알제리 | 188,681 | 16 | 83 | 84% |
| 아르헨티나 | 445,989 | 295 | 657 | 69% |
| 아제르바이잔 | 63,404 | 10 | 67 | 87% |
| 보스니아 | 18,088 | 8 | 15 | 66% |
| 브라질 | 2,476,652 | 2,526 | 2,848 | 53% |
| 불가리아 | 53,514 | 57 | 102 | 64% |
| 칠레 | 248,585 | 244 | 382 | 61% |
| 중국 | 7,318,499 | 2,659 | 8,902 | 77% |
| 콜롬비아 | 331,655 | 262 | 295 | 53% |
| 코스타리카 | 41,007 | 45 | 62 | 58% |
| 도미니카공화국 | 55,611 | 29 | 93 | 76% |
| 에콰도르 | 67,003 | 43 | 92 | 68% |
| 요르단 | 28,840 | 22 | 31 | 58% |
| 카자흐스탄 | 186,198 | 39 | 123 | 76% |
| 라트비아 | 28,252 | 27 | 32 | 54% |
| 리투아니아 | 42,725 | 38 | 44 | 54% |
| 마케도니아 | 10,165 | 11 | 22 | 66% |
| 말레이시아 | 278,671 | 538 | 657 | 55% |
| 멕시코 | 1,155,316 | 942 | 1,249 | 57% |
| 페루 | 176,662 | 103 | 209 | 67% |
| 루마니아 | 179,794 | 122 | 207 | 63% |
| 러시아 | 1,857,770 | 1,895 | 3,227 | 63% |
| 남아프리카공화국 | 408,237 | 1,047 | 564 | 35% |
| 태국 | 345,649 | 331 | 852 | 72% |
| 튀니지 | 45,864 | 18 | 51 | 74% |
| 터키 | 773,091 | 322 | 526 | 62% |
| 우루과이 | 46,710 | 40 | 85 | 68% |

| | 2011년 GDP (\$US M) |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율 |
|----------------|-----------------------|--|--|-------------|
| 중간소득 국가 | | | | |
| 베네수엘라 | 316,482 | 91 | 668 | 88% |

| | 2011년 GDP (\$US M) | 2011년 정품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US M) | 2011년 불법복제율 |
|---------------|-----------------------|--|--|-------------|
| 저소득 국가 | | | | |
| 아르메니아 | 10,248 | 4 | 26 | 88% |
| 방글라데시 | 110,612 | 16 | 147 | 90% |
| 볼리비아 | 24,427 | 16 | 59 | 79% |
| 카메룬 | 25,465 | 2 | 9 | 83% |
| 코트디부아르 | 24,075 | 4 | 16 | 81% |
| 이집트 | 229,531 | 110 | 172 | 61% |
| 조지아 | 14,367 | 5 | 52 | 91% |
| 과테말라 | 46,900 | 31 | 116 | 79% |
| 인도 | 1,847,982 | 1,721 | 2,930 | 63% |
| 인도네시아 | 846,832 | 239 | 1,467 | 86% |
| 이라크 | 115,388 | 28 | 172 | 86% |
| 케냐 | 33,621 | 24 | 85 | 78% |
| 몰도바 | 7,000 | 5 | 45 | 90% |
| 모로코 | 100,221 | 47 | 91 | 66% |
| 나이지리아 | 235,923 | 55 | 251 | 82% |
| 파키스탄 | 211,092 | 45 | 278 | 86% |
| 필리핀 | 224,754 | 145 | 338 | 70% |
| 세네갈 | 14,292 | 3 | 9 | 78% |
| 스리랑카 | 59,172 | 16 | 86 | 84% |
| 우크라이나 | 165,245 | 123 | 647 | 84% |
| 베트남 | 123,961 | 93 | 395 | 81% |
| 예멘 | 33,758 | 2 | 15 | 89% |
| 잠비아 | 19,206 | 0.7 | 3 | 82% |
| 짐바브웨 | 9,900 | 0.3 | 4 | 92% |

합계

63,084,724

BSA(소프트웨어연합) 소개

BSA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일류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BSA는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 방지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으로, 기술 혁신 촉진 및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각 국가 정부와의 교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교육활동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혁신의 창출, 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정보 기술을 향한 신뢰와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혁신의 촉진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상표권)은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창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저작권 산업인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BSA는 세계 전역에서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 활동을 주도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재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지적재산권의 옹호:** BSA는 전세계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발맞춰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 도용 방지:** BSA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단속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상용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End-user license) 침해, 불법복제 및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사들이 소프트웨어 도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선도적인 연구 조사:** BSA는 불법복제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문제의 범위를 규명하고 국가 차원이나 범세계적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계몽 교육:** BSA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폐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수단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조직체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 개방 및 공정한 경쟁 실현

개방된 시장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BSA는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고, 경쟁을 왜곡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달 특혜를 제거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장 기회를 확대합니다.

- ◎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해소:** BSA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전문가 분석 및 업계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시장이자 불법복제가 만연한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에 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 ◎ **기술 중립성 증진:** BSA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과 각국 정부를 위한 공평한 IT 조달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여러 기술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합니다.
- ◎ **새로운 혁신 지원:** BSA는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토양을 마련합니다. 기술 표준 정립에 대한 협업 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 국제 법률 원칙의 조율, 그 밖에 단일 기업이나 정부의 능력 또는 관할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구축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정보기술 (IT)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초석입니다. BSA는 책임감 있는 데이터 관리를 장려할 뿐 아니라, 기술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혁신의 수용과 도입을 촉진합니다.

- ◎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 BSA는 소속 회원사의 전문성과 정부 관료들과의 생산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지식센터이자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소비자 보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 BSA와 소속 회원사들은 그에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그 해안과 식견을 정책입안자 및 규제 기관과 공유합니다.
- ◎ **정책 솔루션의 제시:** BSA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각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 및 처벌할 뿐 아니라, 위협을 완화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사이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인시아드 eLab 소개

세계 최대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인시아드(INSEAD)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직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람과 문화,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Lab은 인시아드 산하의 글로벌 지식경제 최고기관입니다. 인시아드 eLab의 주요 설립 목적은 학계와 기업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연계성은 학술적으로 철저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지도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조사 연구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세계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시아드 eLab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기타 연구 보고서는 insead.edu/elab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bsa.org

BSA Worldwide Headquarters

20 F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01

T: +1.202.872.5500
F: +1.202.872.5501

BSA Asia-Pacific

300 Beach Road
#25-08 The Concourse
Singapore 199555

T: +65.6292.2072
F: +65.6292.6369

BSA Europe, Middle East & Africa

2 Queen Anne's Gate Buildings
Dartmouth Street
London, 1H 9BP
United Kingdom

T: +44.207.340.6080
F: +44.207.340.6090

Argentina Australia Belgium Brazil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India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Malaysia Mexico Netherlands Panama Peru
Poland Russi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Taiwan Thailand Turkey Vietnam